

이 글은 1996년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재원으로 편찬한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rategies in Europe"을 번역한 것이다.

유럽 각국의 산업보건제도

개요(summary)

벨기에(Belgium) · 덴마크(Denmark) · 핀란드(Finland) · 프랑스(France) ·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 아일랜드(Ireland) · 이태리(Italy) · 네덜란드(The Netherlands)
포르투갈(Portugal) · 스페인(Spain) · 스웨덴(Sweden) · 영국(The United Kingdom)

역. 하은희¹⁾, 박혜숙²⁾, 김정연¹⁾

1)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2)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우선 이 글은 책의 소개와 전체를 요약한 개요에서부터 시작하여 13개 유럽국가의 산업보건의료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한다.

개요 (Summary)

I. 서론

이 책은 유럽 13개 국가의 안전과 보건에 관계되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평가하고 조명해 보고자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건강한 작업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정책을 살펴본다.
- 산업재해와 직업병, 결근, 업무수행, 인적,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정책들의 영향을 살펴본다.
- 이러한 정책들의 사회적 파트너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 정책과 관련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 건강한 작업조건을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과 전략의 개발과 미래의 경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비교국가는 유럽의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다.

산업보건의료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순서와 내용에 의하여 모형을 검토하였다.

1. 국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배경
 - 가)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 나) 노사관계
2.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구조
 - 가) 입법
 - 나) 산업안전보건구조
 - 다) 산업안전보건서비스
 - 라) 교육훈련
 - 마) 산업보건보험
3. 기타

II. 전체 요약

1. 국가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배경

가)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유럽시장은 3차산업,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우세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소규모 기업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81-97%, 핀란드, 포르투갈은 100인 미만 사업장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업률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연장근무, 시간제 근무 등 비정규활동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나) 노사관계

이태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는 정부, 근로자, 고용주 3자 연합이 잘되는 consensus-society로 근로자의 대부분을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을 제외하고는 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안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산업보건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노조가입을 하고 노조들은 연맹을 이루어 고용자와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고용주도 연맹, 협회 등을 만들어 이에 가입하고 있다.

2. 산업보건안전정책과 구조

가) 입법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이

러한 산업보건서비스 관련 법조항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여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산업보건서비스의 운영과 물질규제를 상술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골격만을 갖추어 기본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핀란드, 이태리, 스웨덴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유럽의 산업보건서비스에 관한 입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직과 공공부문, 그리고 자영업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추세를 보여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근로자 보호가 고용주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산업보건구조

노동법에 의거하여 산업보건서비스를 수행하는 나라(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보건관련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나라(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이태리)에서는 보건부가 담당 부서가 된다.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에서는 노동부와 보건부가 책임을 분담하여 핀란드에서는 노동부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산업보건서비스의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

사내 산업보건구조로는 보건안전조직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럽 어느 국가에서나 소기업, 이동작업장, 농업과 자영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조직하기는 어렵다. 이런 기업들은 조직화율이 낮고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운데서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인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산업보건안전위원회나 노동자 안전관리위원회가 없

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대표, 즉 20인이하 사업장이라도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대표를 두게 되어있다.

다) 산업보건서비스

산업보건서비스는 보건부, 노동부, 산업부, 농업부, 고용주와 노조 같은 이해집단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국가(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에서는 산업보건책임부서가 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하는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보건서비스의 형태는 한가지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사업장내 서비스, 시보건센터, 민간보건센터, 집단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 대기업모형 - 대기업모형은 대단위의 제조업과 가공업공장에서는 전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산업보건서비스는 공장 내에서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전일제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다. 거대기업의 경우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 팀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모형을 적용하는 나라로는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다.
- 집단보건서비스모형 - 때때로 중소규모의 기업이 모여 산업보건서비스 기관을 조직하기도 한다. 일부국가(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 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이와 같은 집단 서비스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 민간보건기관모형 - 서비스는 집단서비스모형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관련기업의 관리는 받지 않는다. 민간보건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고 보건

기관자체가 사기업이다. 이런 모형을 적용하는 나라는 핀란드, 서독이 있다.

- 지역사회보건소모형 -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기관에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역의 보건기관이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책임이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에서도 이 모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에서는 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농업노동자에게 산업보건서비스의 약 40%를 시보건소에서 관리한다.

라) 교육훈련

유럽의 교육훈련제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근로자, 노조 등에게 실무교육의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특히 핀란드, 포르투갈에서는 초등학교, 직업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 산업보건보험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등 많은 나라에서 산업보건보험은 강제적용이 되고 있으며 고용주가 산업보건의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 산업보건보험을 담당하는 보험회사는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에서는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스에서는 이 사보험이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다. 보험료율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회사의 산재와 질병건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나 일부국가에서는 소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부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보건보험의 목적은 예방으로 예방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높아 단기간해의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가 보장을 받고 있다.